

한국지방신문협회, 민주 당권주자 이용섭 인터뷰

“혁신적 리더십 만이 위기의 민주당 구할 것”

민주당 당권 경쟁이 김한길-이용섭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당권 향배에 따라 당내 역학구조는 물론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섭 후보가 과연 대표 경선에서 승리, '호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광주일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30일 여의도에서 이용섭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대표 출마 배경은. ▲지금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혁신적인 리더십만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수 있다. 저는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관세청장, 국제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내며 혁신을 주도했다. 또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아 정치권에 빛이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혁신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단일화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있다. ▲강기정 의원이 정의롭고 회색계 결단을 해 주셨다. 그리고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주셨

다. 단일화 이후 지지세 확산

호남 자존심 걸고 뛰겠다

당원·국민 새 인물 원해

공천혁명 통해 계파 타파

다. 단일화 이후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지지세가 커지는 등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당원과 국민은 혁신을 성공시킬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구다. 김한길 후보로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기 어렵다. 최근 단일화 이후, 각 지역별 지지 움직임이 마치 해일처럼 일어나고 있다. -계파주의 타개책이 있다면.

▲계파가 이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계파로 인해 항우하고 있는 이득을 없애버리면 계파주의는 절로 없어지게 된다. 저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되더라도 소위 '신세를 갚아야 할' 대상이 없다. 방법론으로는 공천혁



신시스템을 마련, 공천혁명을 통해 계파주의를 없애겠다. -구체적 혁신책을 제시한다면. ▲우선 '공천혁명', '인사혁명'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되도록 하겠다. 둘째, '한국형 예비장관제'를 시행,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인정받게 하겠다. 셋째, 당의 주요 현안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당원 투표제'를 시행, 당원이 주인되는 분권형 정당을 만들겠다.

-당직 및 공직 후보 공천 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공천 시스템 개혁은 이미 약속드린 바 있다. 공천 기준은 1년 전에 정하고 국회의원과 공직 후보는 최소 60일 전에 확정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임기 중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취약지역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되도록 하겠다.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호남의 지지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호남의 자존심을 걸고 뛰고 있다. 호남 정치력의 복원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의 혁신은 지역의 요구고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의 역할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 과감한 혁신으로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겠다. 광주의 후보, 이용섭을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며칠 전에 '문학의 집, 서울'에서 15년 전에 작고한 오유권 선생을 추모하는 '오유권의 밤' 행사를 조촐하게 치렀다. 그 행사에서 나는 오유권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그분의 질박한 삶을 회고했다.

오유권은 불행하게도 젊은 세대들, 혹은 독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인물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은 즉물적이고 피부 감각적이고 소비적이다. 거기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농촌은 신이 만들었다. 농촌은 우주적인 자궁의 핵이자 늪을 운영해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모든 인간을 양생하는 농부는 신의 충실한 아들이고 성스러운 종이다. 오유권이 평생 나주 지방의 농민과 농촌을 소설에 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평생 우주적인 자궁

좋은 때, 혹은 감정이 격해질 때면 그 사투리를 진하게 쓴다. 사투리를 진하게 쓰면서 말을 하는 것은 가장 솔직한 밑바닥스러운 기질, 혹은 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작고한 이청준은 장흥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독문과를 나왔고 서울에서 작고할 때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전라도 장흥 사투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걸쭉하게 사용하곤 했다. 그것은 그의 고향 사랑의 정신이 확고함을 말해준다. 소설 속의 그의 언어는 전라도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였지만, 그의 일상에서는 언제나 전라도 사투리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후세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도 전라도 사투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은 강해져야 하고 정착해져야

전라도 사투리 혹은 전라도의 녀

속에서 신의 충실하고 승연한 종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다.”

오유권처럼 평생 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소설 속에서 많이 구사한 작가는 없다.

사투리란 무엇인가. 한 지방 사람들의 전덕거리는 밥과 물만한 품 냄새와 가슴을 저릿하게 하는 정서, 넉이 짙게 들어 있는 혼의 실체이다.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등은 그 지방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서와 자존심과 정신과 혼이 배어 있다.

사투리는 그 지방 사람의 영혼과 정서의 아킬레스건과 맞닿아 있다. 누군가가 그 지방의 사투리를 건드린다면 그 지방 사람들의 영혼에 전율이 일어난다. 때문에 드라마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기꾼이나 강패나 비굴하고 간사한 인물이 나오면 전라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고, 가난할지라도 감직하고 정직하고 의기와 생명력으로 자라온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전라도의 모든 사람들이 뿌듯해 하는 것이다.

나는 전라도 사투리가 자랑스럽다. 젊은 시절에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표준어 쓰는 습관을 들여 여느 때와는 진한 전라도사투리를 쓰지 않지만 술을 거나하게 마시거나 기분이

하고 의기가 충만해야 하고, 모든 분야 각계각층에서 잘 나가야 하고 잘 살아야 한다.

광주에서 전라도사투리를 잘 구사한 작가의 밤 행사를 열고, 그의 질박한 전라도사투리로 된 작품을 낭송하고, 전라도사투리 잘 쓰기, 전라도 사투리로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를 열면 어떨까. 그것을 광주일보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등을 그 지방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서와 자존심과 정신과 혼이 배어 있다.

그 나라가 부강하면 그 언어가 세게로 널리 퍼지고, 그 언어가 승하면 그 나라도 부강하게 된다. 사투리도 마찬가지이다.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승하면 전라도 사투리도 승하게 된다.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투리 쓰기를 부끄러워할 때 전라도는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뽐뽐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보라.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사투리가 뽐뽐하고 자랑스러운 언어가 되도록 더욱 정직하고, 감직하고, 명랑하고, 건강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전라도 사투리를 잘 사용하는 것은 고향 전라도 사랑, 혹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에 진 빚을 갚아내는 일이다.

<소설가>

민주 전대 막판 호남구에 뜨겁다

유성엽 이어 김한길·신경민 광주전남 공략

민주당 5·4 전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 후보들의 호남 구애가 뜨겁다.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인데다 전대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과 당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때문에 전대 출마 후보들이 막판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자인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은 30일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해, 대의원과 당원 등을 만나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추구하면서 호남을 역차별해선 안된다”며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호남 지역 출신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유 의원은 또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를 총선과 대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패배 이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생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역시 최고위원 후보인 신경민(서울 영등포) 의원은 1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대의원과

당원들을 만나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신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이긴 하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날 전남 동부와 서부권 지역,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칠 계획이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한길(서울 광진구 갑) 의원은 1~2일 사이 광주·전남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기정 후보의 사퇴로 광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용섭 의원과 일대일 구도가 됨에 따라 전대 막판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기정 후보가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퇴하면서 이용섭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강-이 후보 간 앙금 때문에 그 효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호남에서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역제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가

전남도의회, '광양항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편중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광양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

이날 서욱기(민주·광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결의안은 “국가의 미래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양항(광양항-부산항)체제를 유지하고 광양항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욱기 의원은 “광양항은 최대 수심 22m로 대형선박의 접안이 쉽고 연간 46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천혜의 항만임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조차 아무런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서 “광양항의 올해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부산항 1330억원의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철홍 발의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 조례' 통과

전남도의회 박철홍(민주·담양)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조례'가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부터 축산분뇨의 해양 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방안을 만들고,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비용 등을 지원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전

국 최초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연료화'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가축분뇨를 퇴비·연료화하는 등 자원순환 방식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고액대출환영
- ▶사업자금대출
- ▶미준공건물
- ▶공유지분대출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물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서구 쌍촌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물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영광읍 녹서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물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물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물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 ▷회수읍 연양리 자연녹지 대지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저렴한 고금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지세한 문외는 사무실로 내방버립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지세한 문외는 사무실로 내방버립니다.

공장, 창고, 전시장 등
매월통 세공주요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지역
지 전 1,620㎡(493평) 매매가 당200만원 조정
개지자동차관리시설, 전시장, 창고 등 투자적합

투자 및 다용도용 토지
고흥군 동강면 동강중 부근 벌교-고흥 4차선
교차로 코너 관리지역 면적 6,600㎡ 매가 1억
5천 (교통, 접근성 편리, 경사도 없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중랑공인중개사

♣병원건물 임대

☆윤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금호주공3단지,미라보 남양휴먼 우미 일신아파트 등 약 5,500세대) 병의원 개설 하실분 모십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인과)

♣대지,전,담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담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채물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음 대지1,333㎡(9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 하신 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